

영어연구논문의 인칭대명사 번역: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

김 영 신
(계명대)

1. 들어가는 말

최근 번역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번역 이론을 지배했던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엄격한 등가관계의 구축(Nida 27)이라는 절대 임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문을 도착어 문화의 규범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이다. 번역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번역 작업에 앞서 번역문이 도착어 문화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 목적에 맞게 작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은 과연 도착어 문화권의 텍스트적인 규범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이다.

베르미어(Vermeer)는 번역을 인간의 상호작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그러하듯이 번역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에 수반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번역의 목적(skopos)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

해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번역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수용자의 의사 소통상의 요구(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173-187).

이런 맥락에서 번역 과정에서 번역사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라기 보다는 번역문의 수용자가 기대하는 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련하여 베르미어는 원문을 새로운 텍스트 생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넬-혼비(Snell-Hornby)는 번역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context)의 분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31-34). 레피할메(Leppihalme)는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둘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장한다(2-3). 본 논문에서는 학술 논문을 하나의 텍스트 유형으로 보고 텍스트상의 상호작용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I, We, You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텍스트로서의 연구 논문

2.1. 상위 구조와 거시 구조

연구 논문은 라이스(Reiss)의 텍스트 유형¹⁾ (105-115) 분류에 따르면 일견 정보적 텍스트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술 논문은 정보와 내용의 중요

1) 텍스트는 그 유형에 따라 정보적 텍스트 유형(informative text type), 표현적 텍스트 유형(expressive text type), 기능적 텍스트 유형(operative text type) 으로 분류할 수 있다(Reiss 105-115). 먼저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는 정보의 제공, 즉 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매뉴얼이나 교재 등을 들 수 있다.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는 반면 스타일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소설이나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텍스트(operative text)는 독자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설교나 선거 홍보지, 광고 등을 꼽을 수 있다. 하탐 과 메이슨(Hatim & Mason)은 텍스트가 정보적, 표현적, 기능적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텍스트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138).

성과 함께 수사적인 기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쓰여진 연구 논문에서는 은유를 비롯한 많은 수사적인 장치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 것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해당 독자들 입장에서는 논문의 가독성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학술 논문이 기능적 텍스트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은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동의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논문과 교재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된 바 있다. 즉 교재는 이미 확립된 사실을 제시하는 데 비해 연구 논문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론과 연구 결과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논문의 저자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론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하는 한편 이 이론이 아직은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연구 논문은 전형적으로 IMRAD(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 Results and Discussion)의 상위 구조²⁾를 가진다.

하인즈(Hinds)는 한국어로 쓰여진 연구 논문의 정보제시 구조를 연구하면서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수사 구조가 외국인에게는 텍스트 이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전’ 부분은 영어권 독자에게는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90).

한편 리(Lee)는 IMRAD 패턴이 한국어로 쓰여진 연구 논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상위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화의 영향으로 연구 논문에서 보편적인 형태적 구조가 확립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106).

상위 구조가 형태에 관련한 구조라면, 텍스트의 거시 구조는 정보 제시에 관련한 것으로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나 사건의 흐름이 주요 관심사항이라

2) 밴다이크(van Dijk)는 상위 구조(superstructure)와 거시 구조(macrostructure)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데, 거시 구조를 담화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담화는 이런 의미구조 뿐만 아니라 형태 구조(form structure), 즉 상위 구조를 가진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상위 구조는 담화의 거시구조적 내용을 위해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관습화된 도식을 말한다. 따라서 거시 구조는 내용을 다루고, 상위 구조는 형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5-117).

고 할 수 있다. 문화권마다 독특한 텍스트적인 거시 구조를 보인다면 이것은 번역사에게 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인(Clyne)은 학술 서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보 제공 방식에 있어서 영국과 독일 문화권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어 텍스트의 경우 사고와 논리전개에 있어서 선형성(lineality)이 특징이라면, 독일어 텍스트는 선형성이 영어 텍스트만큼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영어권 텍스트에서는 주석이 많지 않고 인용문이나 참고 내용이 본문에 통합되는 반면 독일어권 학술 서적에서는 주석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229).

에깅턴(Eggington)은 한국어로 쓰인 연구 논문에서 흔히 쓰이는 ‘들어가는 말’이 영어의 ‘Introduction’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예로 한국어 저자들은 ‘들어가는 말’에서 문제 제시를 선명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9-20). 즉 ‘들어가는 말’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주로 전체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들어가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논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2.2. 미시 구조

밴다이크는(van Dijk)는 거시구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시구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문장의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미시 구조는 명제의 도움을 받아 표현된다고 밝히고 있다(118). 미시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의 예로서, 파일가드(Pilegaard)는 의학 연구 논문을 비교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논문과 교재를 비교하면, 교재가 사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 양상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반면, 연구 논문에서는 존재 양상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확립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제시한 명제나 해석의 사실 여부에 대한 수위를 낮춘다는 것이다 (178-179).

쿠스마울(Kussmaul)은 독일어와 영어로 쓰여진 학술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인칭 대명사가 독일어 텍스트보다는 영어 텍스트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72-74). 마우라넨(Mauranen)은 영어와 핀란드어로 쓰여진 논문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핀란드 학자들이 영어권 학자들에 비해 메타언어(예를 들어 however/but 이나 first/next와 같이 텍스트의 접속어로서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능을 함)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에 의거하여, 그는 핀란드어로 쓰인 학술 논문은 독자가 내용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47).

3. 실례 분석: 미시구조 중심으로

3.1. 데이터 및 분석의 목적

본 논문에 쓰인 영어 원문은 12편의 언어학 관련 연구 논문으로서 번역사는 대학 교원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로 쓰여진 학술논문(학위 논문을 포함)을 선정하여 원문에 나타난 인칭 대명사 -I, We, You-가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본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 행위에는 참여 당사자들이 있다. 학술 논문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 의사소통 행위의 참여자들은 인칭 대명사들로 텍스트에 표현이 되며 이들 인칭 대명사는 논문의 저자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는지 보여 준다(Gragson & Selzer 28; Kuo 123).

학술 논문은 학자가 자신의 생각하는 바나 실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출판하는 것이다.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논문의 독자들에게 설득력있게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필요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여 결과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지를 관찰해 본 후, 한국어로 번역이 될 경우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바니치 와 심슨 (Ivanič & Simpson)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논문의 저자는 ‘I’를 쓴다고 말하고 있다: 1) 저자 자신의 의견(관찰 결과)을 밝힌다, 2) 독자에게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알린다, 3) 논문의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4) 논문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지 밝힌다, 5) 논문의 구성에 대해 미리 밝힌다(164-165).

데이터 수집 결과 다음과 같은 실례를 찾을 수 있었다.

A. 저자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In opposition to Werner Koller(1992), I state that there is reason to assert that practitioners need translation studies.

B. 독자에게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알린다.

I am not able to give an instant answer to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C. 논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I attempt to explicate the function of the Korean topic marker *nun/un* in ordinary conversation.

D. 논문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 지 밝힌다.

When I speak of 'expressions of politeness', I do not mean superficial events.

E. 논문의 구성에 대해 미리 알린다.

In this subsection, I will discuss so-called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by which segments not...

물론 데이터 분석 결과, 이외에도 다양하게 ‘I’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 기타

1. 재언급(back-reference)

As I noted above,

2.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

I used audio-taped, face-to-face conversational data.

‘I’를 제외한 다른 인칭 대명사 ‘we’나 ‘you’도 쓰이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we’는 ‘I’를 대신해서 빈번하게 쓰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우드(Harwood)는 연구 논문에서 저자들이 인칭 대명사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1207). 그는 인칭 대명사를 이용하여 논문의 저자들이 자기 홍보나 자기 인용 등을 통해 자신을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³⁾.

3.2 사례 분석

1) 원문의 we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1.1)

ST: If we analyze this quotation a little, we will be able to isolate the range of meanings that the term discourse has accrued to itself within Foucault's work.

3) 하우드(Harwood)는 인문분야의 국제 저널에 제출된 논문 중 게재 불가 판정을 받는 논문이 전체 논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문의 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 홍보(self-promotion)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1209).

1. 자기 홍보(self-promotion)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owever, I believe that this is a one dimensional view, in that sensations may well be necessary complements of emotion while not being the defining feature.

2. 자기 인용(self-citation)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I show elsewhere in my earlier work (Smith, 1999) that...

TT: 이 인용된 구절의 분석을 통해서 푸코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담론이라는 용어가 발생시키는 의미들의 범위를 각각 규정해 볼 수 있다.

(1.2)

ST: Even though none of these strategies produce a simple, clear meaning of the term, but rather only serves to show us the fluidity of its meaning.

TT: 물론 이 전략은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결한 의미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용어가 가진 의미의 풍부함을 제시할 지도 모른다

원문에 있었던 'we'가 한국어의 대응어인 '우리'로 번역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원문에 나타난 일인칭 복수형 대명사 we는 화자와 청자사이의 유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자는 we를 사용함으로써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독자의 참여 유도가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텍스트로서의 연구 논문을 독자와 저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독자를 대상으로 한 화자의 정보 제공으로 보느냐 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어 원문의 경우 'we'라는 표현을 통해 텍스트의 수용자도 텍스트의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번역문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과 레빈슨(Brown & Levinson)의 공손이론(politeness theory)에 따르면 공손에는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이 있다. 간략하게 말해서, 적극적 공손이 의사소통 당사자 사이에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소극적 공손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거해서 위에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영어 원문에서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보다 독자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독자와의 유대형성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와 사실의 제시에 더 많은 무게를 두게 된다.

2) 원문의 'I'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2.1)

ST: I take this to mean that, here, he is interested less in the actual utterances/texts that are produced than in the rules and structures which produce particular utterances and texts.

TT: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실제 생성된 발화/텍스트가 아니라 특정 발화나 텍스트를 생성한 규칙과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원문 (2.1)에서 저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것은 'I'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유보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2.2)

ST: As I mentioned above, what makes the process of defining discourse even more complex is...

TT: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담론의 정의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2.2)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에서 저자는 능동태로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번역문에서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저자의 행위성(agency)이 번역문에서는 덜 두드러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2.3)

ST: I will show in Chapter 3, statements-the most fundamental building blocks of discourse-are those utterances or parts of text which have an effect.

TT: 3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언술-담론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이루는 구성자-은 그 자체 효과를 발휘하는 발화이거나 텍스트의 일부이다.

(2.4)

ST: This is because, as I hope to show in this chapter, within discourse theory, questions of agency are less clear,

TT: 이 것은 이장에서 보여질 것인데, 담화 이론에서 행위자의 문제는 보다 더 분명하고,

(2.3)과 (2.4)에서 저자는 텍스트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장에서 자신이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번역문에서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 구성상의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원문의 'you'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3.1)

ST: Within late twentieth-century Western thought, it is not assumed that you will grasp the essence of a subject, in this case, racial difference, merely by accumulating large amounts of data relating to the subject and organizing this material onto tabular forms.

TT: 20세기 후반 서구 사유에서는 주제의 본질, 이 경우 인종적 차이는 단순히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거나 이 자료를 도표로 만듦으로써 파악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영어 원문의 you를 한국어 번역문에 대응어 '당신'이나 '여러분'으로 전이 하는 경우 대부분 번역문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일 것이다. 텍스트는 생산자(저자)와 소비자(독자)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전제하에서, 위의 데이터를 보면 원문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여 마치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반면 번역문에서는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하여 독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문화권마다 텍스트의 전개 방식이나 규범에 대한 독자의 기대는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번역사가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형성의 규범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연구의 관심을 두었다. 번역사는 원문독자와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번역문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번역에서 거시구조나 상위 구조를 어떻게 번역문의 규범에 맞게 제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번역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티姆(Hatim)은 텍스트 공손(text politeness)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번역에 있어서 수용 문화권의 규범과 수용독자의 기대치에 맞게 번역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88).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해서 미시 구조의 예로서 메타언어 발화(metalinguistic utterances)가 번역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를 지칭하는 대명사-I, we, you, us-의 경우, 영어 텍스트에는 외재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위의 대명사들이 직접적으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다. 특히 텍스트 생산자 자신을 가리키는 'I'의 경우 한국어 대응어라고 할 수 있는 '나, 내가, 저는' 등과 같은 대명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번역상의 변화는 한국어로 학술 논문을 쓰는 경우 인칭 대명사가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수용어 문화권의 규범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번역사는 번역이라는 과정에서 텍스트 생성에 관련한 텍스트적 규범에 주의를 기울여서 번역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착어 문화권의 텍스트 규범이나 도착어 독자의 기대치는 모든 번역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 1987.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P.
- Clyne, Michael. 1987. "Cultural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Academic Texts". *Journal of Pragmatics* 11: 201-239.
- Egginton. 1987. "Written Academic Discourse in Korean: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eds. Connor, Ulla and Robert Kaplan.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Second Language Text*. Rowley, MA: Newbury House. 9-21.
- Gragson, Gay and Jack Selzer. 1990. "Fictionalizing the Readers of Scholarly Articles in Biology". *Written Communication* 7 (1), 25-58.
- Harwood, Nigel. 2005. "Nowhere Has Anyone Attempted... In This Article I Aim To Do Just That' A Corpus-based Study of Self-Promotional I and We in Academic Writing Across Four Disciplines". *Journal of Pragmatics* 37, 1207-1231.
- Hatim, Basil, 1998. "Text Politeness: A Semiotic Regime for a More Interactive Pragmatics". ed. Leo Hickey.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Multilingual Matters Ltd. 71-102.
- Hinds, John. 1983. "Contrastive Rhetoric: Japanese and English". *Text* 3, 183-195.
- Ivanič, Roz and John Simpson. 1992. "Who's Who in Academic Writing". ed. Fairclough. *Critical Language Awareness*. London: Longman. 141-173.
- Kuo, Chih-Hua. 1999.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Role Relationships in Scientific Journal Articl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2), 121-138.
- Kusmaul, Paul. 1997. "Text-type Conventions and Translating: Some Methodological Issues". ed. Trosborg, Anna.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67-83.
- Lee, Sun. 2001. *An Contrastive Rhetoric Study of Korean and English*

- Research Paper Introdu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ppihalme, Ritva. 1997.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Mauranen, Anna. 1993. *Cultural Differences in Academic Rhetoric: A Textlinguistic Study*. NY: Peter Lang.
- Nida, Eugen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Pilegaard, Morten. 1997. "Translation of Medical Research Articles". ed. Trosborg, Anna.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59-184.
- Reiss, Katharina. 19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ed. Chesterman, Andrew,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 Oy Finn Lectura Ab. 105-115.
- Snell-Hornby, Mary.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Revised e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an Dijk, Teun. 1985a. "Semantic Discourse Analysis", ed. van Dijk.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2*. Academic Press. 103-136.
- Vermeer, Hans. 1989.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ed. Chesterman, Andrew.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 Oy Finn Lectura Ab. 173-187.

K C I

[Abstract]

Translation of Personal Pronouns in English Research Papers into Korean: A Textlinguistic Approach

Kim, Youngshin
(Keimyung Univers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is to produce a target text which conforms to the norms and conventions of TC(Target Culture) and satisfies communicative needs of TT(Target Text) readers. Using research papers as its data, the present study aims to show how Korean research paper conventions differ from their English counterparts. The identification of such differences, it is argued in the paper, will be of great help to translators, because they can come up with optimal strategies when they are encountered with translational problem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devoted to exploring textu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research articles and English ones in terms of macrostructure/superstructure,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f microstructure. Especially with regard to microstructure, this paper analyzes metalinguistic utterances in which participants in the textual interaction become explicitly manifested. It is argued that personal pronouns such as 'I', 'We', and 'You' appear more frequently in English research papers, thus creating personal involvement between the author and reader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se constructions were usually rendered in passive forms in Korean target texts. Drawing on the concept of text polite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ran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o comply with the textual norms of TT.

▶Key Words: communicative needs, macrostructure/superstructure, microstructure, metalinguistic utterances, textual interaction, text politeness

김영신

계명대학교 초빙교수

관심분야: 번역학

연락처: shiny25@empal.com

논문투고일: 2006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8일

K C I